

우리 반 회장의 조건

- * 글 : 윤지현
- * 그림 : 안병현
- * 펴낸곳 : 단비어린이
- * 정가 : 11,000원
- * 분량 : 112쪽
- * 대상 : 초등학교생

·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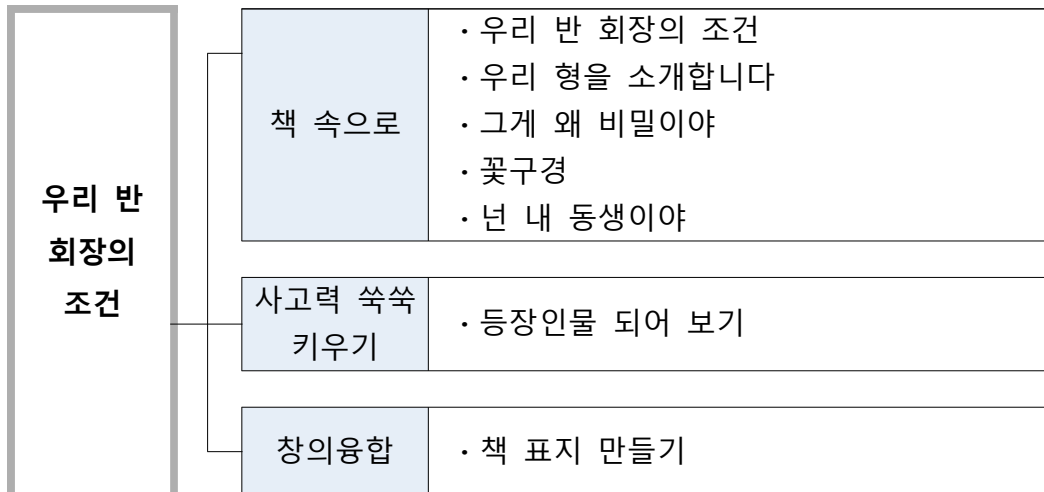
열두 살, 인생의 빛과 그림자를 알게 될 나이
 삶의 양면을 겪으며 성장하는 아이들의 온기 가득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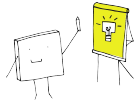
“너희가 걱정할 일이 뭐 있니?” 어른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아이들의 하루 속에도 나름의 한숨과 고뇌가 있고, 웃음과 환희가 있습니다. 이 책 속의 다섯 이야기는 그런 인생의 양면을 겪으며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회장이 되어 모두의 주목을 받음과 동시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책임감에 괴로워하는 슬기, 마음이 아픈 병을 가진 형 때문에 자신도 마음이 아픈 세환이, 폐지를 줍는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아영이..... 때론 코끝이 찡할 만큼 안타깝지만, 아이들은 대견하게도 그 아픔을 흡수하고 더 단단해져요.

얼핏 보면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백이면 백 모두 다른 환경에서 각자의 꽃을 피우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까요.

· 주요 독후활동





독서 전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 미리 보기 : 표지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 (1~2) 『우리 반 회장의 조건』의 책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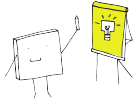
1. 표지 중앙에 그려진 아이의 표정은 어떤가요?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걸까요?
2. 표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누구의 이야기가 가장 재밌을 것 같나요?

※ (3~5) 『우리 반 회장의 조건』 뒤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너희가 걱정할 일이 뭐 있니?” 어른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아이들의 하루 속에도 나름의 한숨과 고뇌가 있고, 웃음과 환희가 있습니다. 이 책 속의 다섯 이야기는 그런 인생의 양면을 겪으며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회장이 되어 모두의 주목을 받음과 동시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책임감에 괴로워하는 슬기, 마음이 아픈 병을 가진 형 때문에 자신도 마음이 아픈 세환이, 폐지를 줍는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아영이…… 때론 코끝이 찡할 만큼 안타깝지만, 아이들은 대견하게도 그 아픔을 흡수하고 더 단단해져요. 얼핏 보면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백이면 백 모두 다른 환경에서 각자의 꽃을 피우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까요.

3. 어른들에게 “너희가 걱정할 일이 뭐 있니?”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4. 슬기는 어떤 걱정이 있나요?
5. 밑줄 친 부분에 ‘아픔을 흡수하고 더 단단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독서 후 어휘력 쑥쑥 키우기

※ 책에 나오는 어휘를 익혀봅시다.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 아이들은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①추켜세웠다.

• 같이 하자는 말이 ②새삼스레 좋았다.

• 진주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③셀쪽하기는 했지만 드러내 놓고 반대도 못 했다.

• 엄마는 진주처럼 ④야무진 애도 없다고 칭찬까지 하니 더더욱 손해를 보는 기분이다.

• ⑤애꿎은 김치만 쪽쪽 찢어 아영이 밥 위에 올렸다.

(나) 나갈 생각에 기분이 들뜨기 시작했다.

1. (가)의 밑줄 친 각 낱말은 어떤 뜻으로 쓰였을지 알맞은 뜻과 연결해보세요.

① 추켜세우다

• •

㉠ 이미 알고 있던 것에 갑자기 새로운 마음이 들
다.

② 새삼스럽다

• •

㉡ 정도 이상으로 크게 칭찬하다.

③ 셀쪽하다

• •

㉢ 그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④ 야무지다

• •

㉣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서 약간 섭섭해 하는 태도
가 드러나다.

⑤ 애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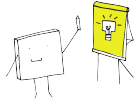
• •

㉤ 사람의 행동이 빈틈없이 꽤 단단하고 굳세다.

2. (나)의 밑줄 친 낱말 ‘들뜨다’는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마음이나 분위기가 가라앉지 아니하고 조금 흥분되다.

이를 참고로, ‘들뜨다’를 넣어 문장을 지어 보세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① 우리 반 회장의 조건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오늘 난 5학년 2반 1학기 회장이 되었다. 회장이 되니까 키도 더 커진 건지 아이들이 다 한눈에 들어왔다. 학교에서부터 집까지 돌아오는 길에도 모두가 날 보고 있는 것 같아 좀처럼 뛰지 못했다. 내가 무슨 모델이라도 된 것처럼 걸음걸이에 신경이 쓰일 정도였다. 이렇게 좋은 걸 왜 진작 하지 않았을까. 두고 봐. 난 정말 ‘특별한’ 회장이 될 테니까.

(나) ‘회장’이라고 하니까 내가 정말 뭐든지 다 해야 할 것 같았다. ‘회장 병’에 감염되어서 사실 내가 가진 힘보다 더 많은 힘을 내고 있는 것도 같았다. ‘슬기야’ 하면 좋을 텐데. ‘최슬기’랑 ‘5학년 2반 회장’은 같은 사람인데 다르게 불리는 것 같았다.

그동안 ‘김민혁’을 왜 전학생이라고 부른 걸까? 전학생 김민혁은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한 걸까? 그렇다면 아이들이 나를 회장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 이유일까? 회장은 달라야 한다? 회장만 배려해야 하는 걸까? 회장인 나는 원래 최슬기와 달라야 하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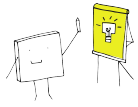
1. (가)와 (나)에서 ‘회장’에 대한 슬기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가)	(나)

2. 회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내가 생각하는 회장의 조건이 있나요?

	회장의 조건
①	
②	
③	

3. 위에 내가 적은 조건들은 꼭 회장만 해야 하는 일인가요? 내가 적은 조건을 다시 읽고, 반 친구들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일과 회장이 특별히 더 해야 할 일을 나누어 보세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② 우리 형을 소개합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영동이는 얼른 이사 가서 형이랑 방을 따로 쓰는 게 소원이라고 했다. 그래도 가끔은 같이 잠도 자고 목욕도 하면 재미있을 때도 있다고 했다. 나는 형이랑 한방을 쓰는 게 소원이다. 우리 형은 같이 뭘 한다는 걸 생각할 수도 없다. 내가 형 동생이라는 것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날 보려고 하지도 않고 항상 거실 구석에서 그림만 그린다.

(나) “웬지 엄마가 뭘 잘못해서 형이 아픈 것 같아. 암전한 아기라고만 생각했는데……. 우리 세환이는 이렇게 엄마 말도 들어주고, 안아 주기도 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우리는 형의 비명 소리가 들릴 때까지 꼭 안고 있었다. 엄마가 벌떡 일어나 형 쪽으로 빛이 가지 않게 커튼을 쳤다.

(다) “세환아, 그리기 숙제 다 했니? 안 했으면 엄마랑 같이 해. 형 옆에서 같이 하자.” “정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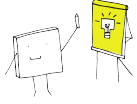
같이 하자는 말이 새삼스레 좋았다. 얼른 그리기 준비를 하고 거실로 나왔다. 형은 여전히 같은 곳에 앉아 있었다.

“누구를 그릴까?”

엄마가 형이 아닌 날 보며 물었다. 그런데 내 눈은 자꾸만 형을 향했다.

“엄마, 형 그리자. 그냥 웃지 않는 형 그리지 뭐. 웃지 않아도 우리 형이잖아.”

1. 세환이는 영동이의 어떤 점이 부러웠나요?
2. (나)에서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3. 내가 세환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림 옆에 들어갈 형 소개 글을 적어 보세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③ 그게 왜 비밀이야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자기네 집엔 한 번도 안 데려가고. 절친이 뭐 이래? 네가 한 번 왔다 가면 우리 엄마 잔소리가 얼마나 많아지는 줄 알아? 똑 부러지는 너 좀 닻으라고.’

나는 늘 우리 집에서만 놀자는 진주가 못마땅할 때가 많았다. 진주가 오면 엄마는 간식도 내주고 사이좋게 놀라고 한다. 하지만 진주는 먹고 쓱 가 버리기 때문에 뒷정리는 늘 내 몫이다. 맛있게 먹고 노는 것은 좋은데 왠지 손해 보는 기분이 많이 든다. 게다가 엄마는 진주처럼 아무진 애도 없다고 칭찬까지 하니 더더욱 손해를 보는 기분이다.

(나) ‘진주 좀 봐라. 넌 감사한 줄도 모르고. 버릇없는 말투 좀 고쳐야 해.’

엄마의 잔소리도 들렸다. 나는 손을 짝 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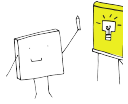
“애들아, 이진주. 여태껏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야.”

진주의 눈이 커졌다. 몸도 바르르 떨리는 것 같았다.

“애, 사는 집도, 과외한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야.”

아이들의 시선은 진주에게로 향했다. 진주는 눈을 부릅뜨고 입을 짝 다물었다. 짝 씹 주 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커다랗고 빨개진 눈이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알아듣지는 못했다.

1. 진주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었나요?
2. (나)의 밑줄 친 부분에서 진주는 뭐라고 말하고 있었을까요? 상상해서 적어 보세요.
3. 내가 민경이라면 지금까지 진주가 거짓말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나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④ 꽃구경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아영아, 우리 오늘 꽃구경 갈까?”

“꽃구경? 할머니랑 둘이?”

아영이는 할머니를 빤히 보았다. 할머니는 아영이를 보며 방긋 미소 지었다.

‘어휴, 애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이런 말 못 할 텐데. 내가 미쳐.’

어제 민지가 할머니 흥본 것이 아직 기억에 선명했다.

“그래, 우리도 꽃구경 한번 가 보자. 너무 이른가?”

“싫어. 웬 꽃구경?”

“우리 둘이 가기 싫으면 민지도 불러서 같이 가자고 할까?”

“누구?”

얼굴이 팍 찡그려졌다.

(나) ‘그때 꽃구경을 갔으면…….’

“아영아!”

작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민지가 목장갑을 낀 양손을 들어 보였다.

“아마 매일매일은 못 도와줄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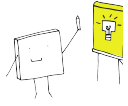
슬며시 웃는 민지가 꽃처럼 환하게 다가오며 말했다.

“밤에 봐서 그런가, 꽃이 더 예쁘네. 다 떨어지기 전이라 다행이다. 아영아, 우리 꽃구경 하면서 하자, 응?”

1. 아영이는 왜 민지를 미워하게 되었나요?

2. 아영이는 왜 할머니가 다친 게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나요?

3. 아영이의 친구가 되어 힘내라는 편지를 써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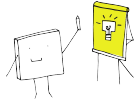


독서 후 책 속으로_ ⑤ 년 내 동생이야

※ 「년 내 동생이야」을 읽고, 각 상황에서 종현이의 마음은 어땠는지 정리해 보세요.

뽀삐가 우리 가족의 중심이 되고, 나에게 뽀삐의 형이라고 한다.	내가 밤늦게까지 만든 작품을 뽀삐가 망가뜨렸다.	뽀삐를 괴롭히는데도 뽀삐가 자꾸 꼬리를 흔들었다.
⇨ 다들 뽀삐만 신경 쓰는 것 같아 질투가 난다.	⇒	⇒
뽀삐와 함께 신나게 달렸다.	어떤 아저씨가 반려견을 위협했다.	누나가 뽀삐하고만 산책을 갔다.
⇐	⇐	⇐

2. 종현이는 강아지를 위협하는 아저씨에게 따끔하게 “반려견은 가족이에요!” 하고 말합니다. 반려견을 학대하거나 버리는 사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 주고 싶은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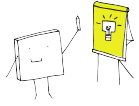
독서 후 사고력 쑥쑥 키우기

1. 「우리 형을 소개합니다」의 세환이 엄마와 「꽃구경」의 아영이는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습니다. 세환이 엄마와 아영이가 만나서 대화를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상상해서 적어 보세요.

세환, 수환 엄마	
아영이	
세환, 수환 엄마	
아영이	
세환, 수환 엄마	
아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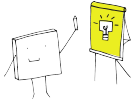
2. 네 가지 이야기의 등장인물에게 궁금했던 점을 질문 쪽지에 적어 보세요. 질문 쪽지를 오린 뒤, 책을 읽은 친구들과 함께 쪽지를 뽑고, 뽑은 친구가 그 등장인물이 되어 답을 해 보세요.

「우리 반 회장의 조건」의 슬기에게 6학년이 되면 회장 선거에 나가지 않을 생각이야?		



독서 후 창의융합_ ① 책 표지 만들기

※ 다섯 가지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골라 책 표지를 만들어 보세요.



정답과 해설(예시 답안)

2쪽	<p>1. (예시 답안) 자랑스러운 표정이다. 회장으로 당선되어서 그런 것 같다.</p> <p>2. (예시 답안) 아래쪽에 그려진 강아지와 아이의 이야기가 재밌을 것 같다. 강아지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p> <p>3. (예시 답안) ‘나도 고민이 많은데, 왜 내 고민은 무시하지?’라는 생각이 든다.</p> <p>4. 회장이 되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괴로워한다.</p> <p>5. (예시 답안) 힘든 일을 견디고 나면 더 성장한다는 의미 같다. 한번 아픔을 겪은 뒤에는 나랑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고, 다음에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도 있다.</p>												
3쪽	<p>1.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p> <p>2. (예시 답안) 반장이 되었다는 기쁨에 들떠 잠을 이루지 못했다.</p>												
4쪽	<p>1.</p> <table border="1" data-bbox="268 840 1361 990"> <thead> <tr> <th>(가)</th> <th>(나)</th> </tr> </thead> <tbody> <tr> <td>⇒ 예시 답안) 회장은 특별하다.</td> <td>⇒ 예시 답안) 회장이라는 이유로 맡겨진 일들이 너무 무겁다.</td> </tr> </tbody> </table> <p>2.</p> <table border="1" data-bbox="268 1048 1361 1205"> <thead> <tr> <th colspan="2">회장의 조건</th> </tr> </thead> <tbody> <tr> <td>①</td> <td>⇒ 예시 답안) 반에서 누군가 따돌림을 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td> </tr> <tr> <td>②</td> <td>⇒ 예시 답안) 뒤처지는 친구들 도와줘야 한다.</td> </tr> <tr> <td>③</td> <td>⇒ 예시 답안)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전달해야 한다.</td> </tr> </tbody> </table> <p>3. 예시 답안) ①, ②번은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다. ③번은 회장이 대표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전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해야 하는 일이다.</p>	(가)	(나)	⇒ 예시 답안) 회장은 특별하다.	⇒ 예시 답안) 회장이라는 이유로 맡겨진 일들이 너무 무겁다.	회장의 조건		①	⇒ 예시 답안) 반에서 누군가 따돌림을 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②	⇒ 예시 답안) 뒤처지는 친구들 도와줘야 한다.	③	⇒ 예시 답안)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전달해야 한다.
(가)	(나)												
⇒ 예시 답안) 회장은 특별하다.	⇒ 예시 답안) 회장이라는 이유로 맡겨진 일들이 너무 무겁다.												
회장의 조건													
①	⇒ 예시 답안) 반에서 누군가 따돌림을 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②	⇒ 예시 답안) 뒤처지는 친구들 도와줘야 한다.												
③	⇒ 예시 답안)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전달해야 한다.												
5쪽	<p>1. 세환이는 형과 같이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영동이가 형과 함께 무언가 하는 게 부러웠다.</p> <p>2. 예시 답안) 세환이와 세환이 형에게 미안하고, 고맙다.</p> <p>3. 예시 답안) 우리 형은 웃지 않습니다. 같이 잠을 자거나 목욕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 건 물론이고, 얘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늘 형의 마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가끔 자기 얘기를 할 수 없는 형이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형은 우리 가족이 형을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마음으로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p>												
6쪽	<p>1. 할머니와 둘이 살며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p> <p>2. 예시 답안) 민경아, 그만 해. 거짓말 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야.</p> <p>3. 예시 답안) 둘이 있을 때 조용히 나한테까지 속일 필요는 없다고 말해줄 거다. 거짓말을 하고, 감추는 것도 힘들 것 같기 때문이다.</p>												
7쪽	<p>1. 민지가 아영이 할머니 흉을 보고 다녔고, 반지하에 산다고 친구들에게 소문을 내서 미워하게 되었다.</p> <p>2. 할머니와 꽃구경을 갔더라면 할머니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p> <p>3. 예시 답안) 아영이에게 아영아, 너에게 힘든 일이 생겼다는 얘기 들어. 그런데 할머니의 사고가 너 때문에 일어난 거라는 죄책감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앞으로 내가 도울 일이 있다면 알려줘. 너에게 힘이 되고 싶어. 너의 친구 ***가</p>												

<p>8쪽</p>	<p>1.</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 padding: 5px;"> 뽀빠가 우리 가족의 중심이 되고, 나에게 뽀빠의 형이라고 한다. </td> <td style="width: 33%; padding: 5px;"> 내가 밤늦게까지 만든 작품을 뽀빠가 망가뜨렸다. </td> <td style="width: 33%; padding: 5px;"> 뽀빠를 괴롭히는데도 뽀빠가 자꾸 꼬리를 흔들었다. </td> </tr> <tr> <td style="padding: 5px;"> ⇨ 다들 뽀빠만 신경 쓰는 것 같아 질투가 난다. </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td> <td style="padding: 5px;"> ⇨ 예시 답안) 힘들게 만든 작품이 망가져서 화가 난다. 그런데도 엄마는 뽀빠편만 들어서 더 짜증이 났다. </td> </tr> <tr> <td style="padding: 5px;"> ⇨ 예시 답안) 뽀빠는 우리 가족이고, 평생 함께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td> <td style="padding: 5px;"> ⇨ 예시 답안) 강아지를 싫어하는 아저씨에게 화가 났다. 그러면서 뽀빠도 우리 가족이라는 마음이 들었다. </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 padding: 5px;"> 뽀빠와 함께 신나게 달렸다. </td> <td style="width: 33%; padding: 5px;"> 어떤 아저씨가 반려견을 위협했다. </td> <td style="width: 33%; padding: 5px;"> 누나가 뽀빠하고만 산책을 갔다. </td> </tr> <tr> <td style="padding: 5px;"> ⇨ 예시 답안) 뽀빠와 함께 산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td> <td style="padding: 5px;"> ⇨ 예시 답안) 뽀빠와 함께 산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td> </tr> </table> <p>2. 예시 답안) 반려견은 누군가의 가족이에요. 가족을 때리거나 버리는 행동은 하면 안 돼요. 또 반려견은 사람보다 약한 존재예요. 약한 존재는 누군가 돌봐주고, 지켜줘야 해요.</p>	뽀빠가 우리 가족의 중심이 되고, 나에게 뽀빠의 형이라고 한다.	내가 밤늦게까지 만든 작품을 뽀빠가 망가뜨렸다.	뽀빠를 괴롭히는데도 뽀빠가 자꾸 꼬리를 흔들었다.	⇨ 다들 뽀빠만 신경 쓰는 것 같아 질투가 난다.	⇒	⇨ 예시 답안) 힘들게 만든 작품이 망가져서 화가 난다. 그런데도 엄마는 뽀빠편만 들어서 더 짜증이 났다.	⇨ 예시 답안) 뽀빠는 우리 가족이고, 평생 함께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	⇨ 예시 답안) 강아지를 싫어하는 아저씨에게 화가 났다. 그러면서 뽀빠도 우리 가족이라는 마음이 들었다.	뽀빠와 함께 신나게 달렸다.	어떤 아저씨가 반려견을 위협했다.	누나가 뽀빠하고만 산책을 갔다.	⇨ 예시 답안) 뽀빠와 함께 산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 예시 답안) 뽀빠와 함께 산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뽀빠가 우리 가족의 중심이 되고, 나에게 뽀빠의 형이라고 한다.	내가 밤늦게까지 만든 작품을 뽀빠가 망가뜨렸다.	뽀빠를 괴롭히는데도 뽀빠가 자꾸 꼬리를 흔들었다.														
⇨ 다들 뽀빠만 신경 쓰는 것 같아 질투가 난다.	⇒	⇨ 예시 답안) 힘들게 만든 작품이 망가져서 화가 난다. 그런데도 엄마는 뽀빠편만 들어서 더 짜증이 났다.														
⇨ 예시 답안) 뽀빠는 우리 가족이고, 평생 함께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	⇨ 예시 답안) 강아지를 싫어하는 아저씨에게 화가 났다. 그러면서 뽀빠도 우리 가족이라는 마음이 들었다.														
뽀빠와 함께 신나게 달렸다.	어떤 아저씨가 반려견을 위협했다.	누나가 뽀빠하고만 산책을 갔다.														
⇨ 예시 답안) 뽀빠와 함께 산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 예시 답안) 뽀빠와 함께 산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p>9쪽</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padding: 5px;">세환, 수환 엄마</td> <td style="padding: 5px;">⇨ 예시 답안) 아픈 가족을 돌보는 건 힘든 일이에요. 어린 나이에 할머니를 돌보는 아영이도 대단해요.</td> </tr> <tr> <td style="padding: 5px;">아영이</td> <td style="padding: 5px;">그래도 저는 할머니와 대화할 수 있어서 괜찮아요. 수환이는 대화가 되지 않아서 힘드실 것 같아요.</td> </tr> <tr> <td style="padding: 5px;">세환, 수환 엄마</td> <td style="padding: 5px;">수환이와 말은 통하지 않지만, 마음은 서로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세환이가 잘 도와주기도 하고요.</td> </tr> <tr> <td style="padding: 5px;">아영이</td> <td style="padding: 5px;">저도 민지와 이웃들이 잘 도와줘요. 처음엔 민지가 너무 미웠는데, 이제 민지와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아요.</td> </tr> <tr> <td style="padding: 5px;">세환, 수환 엄마</td> <td style="padding: 5px;">아픈 사람을 혼자 돌보는 건 힘들지만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이 많으면 힘이 나는 것 같아요.</td> </tr> <tr> <td style="padding: 5px;">아영이</td> <td style="padding: 5px;">맞아요. 이렇게 같은 아픔을 가진 분이랑 얘기하는 것도 힘이 되네요.</td> </tr> </table> <p>2. 답안 생략</p>	세환, 수환 엄마	⇨ 예시 답안) 아픈 가족을 돌보는 건 힘든 일이에요. 어린 나이에 할머니를 돌보는 아영이도 대단해요.	아영이	그래도 저는 할머니와 대화할 수 있어서 괜찮아요. 수환이는 대화가 되지 않아서 힘드실 것 같아요.	세환, 수환 엄마	수환이와 말은 통하지 않지만, 마음은 서로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세환이가 잘 도와주기도 하고요.	아영이	저도 민지와 이웃들이 잘 도와줘요. 처음엔 민지가 너무 미웠는데, 이제 민지와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아요.	세환, 수환 엄마	아픈 사람을 혼자 돌보는 건 힘들지만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이 많으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아영이	맞아요. 이렇게 같은 아픔을 가진 분이랑 얘기하는 것도 힘이 되네요.			
세환, 수환 엄마	⇨ 예시 답안) 아픈 가족을 돌보는 건 힘든 일이에요. 어린 나이에 할머니를 돌보는 아영이도 대단해요.															
아영이	그래도 저는 할머니와 대화할 수 있어서 괜찮아요. 수환이는 대화가 되지 않아서 힘드실 것 같아요.															
세환, 수환 엄마	수환이와 말은 통하지 않지만, 마음은 서로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세환이가 잘 도와주기도 하고요.															
아영이	저도 민지와 이웃들이 잘 도와줘요. 처음엔 민지가 너무 미웠는데, 이제 민지와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아요.															
세환, 수환 엄마	아픈 사람을 혼자 돌보는 건 힘들지만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이 많으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아영이	맞아요. 이렇게 같은 아픔을 가진 분이랑 얘기하는 것도 힘이 되네요.															
<p>10쪽</p>	<p>1. 답안 생략</p>															